

# 빛·소리·향기·손짓...오감으로 느끼는 추억의 총장축제

### 10월 2~6일 금남로 등서... '총.장.발.光(광)-다시 타오른 열정...' 오락실 게임·LP로 히트곡 듣기·추억의 보드게임 등 행사 다채

'추억의 오락실 게임하기', 'LP, CDP 등 과거 음향기기로 추억의 히트곡 듣기', '브라운관 TV 시청하기' 광주의 대표축제 자리잡은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올해는 '오감으로 느끼는 추억'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체험형 축제행사를 덧입혀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고 중장년층 이상에게는 향수를 느끼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동구는 제21회 총장축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총.장.발.光(광)-다시 타오른 열

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빛과 소리, 향기와 손짓 등 '오감(五感)'에 기반해 '추억의 놀이터'를 소환하는 것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짰다는 것이 동구 설명이다.

개막식은 10월 2일 오후 7시 금남로 주무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 설치된 테마파크형 조명에 불을 켜는 점등식을 하고, 축하공연과 불꽃쇼 등을 할 계획이다.

10월 3일에는 금남로2가 주무대와 보조 무대 등 3개의 무대에서 '추억의 감성 콘서트'를 열어 세대와 성별을 떠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음악을 선보인다. 이튿날에는 '열정 댄스 나이트'가 열리며, 나이를 불문한 전국 각지의 DJ들의 디제잉을 통해 추억

의 댄스음악을 들려준다.

10월 5일 오후 6시부터는 지난해 제20회 총장축제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파이어아트 퍼레이드'가 다시 펼쳐진다.

이날은 먼저 전국의 개인 참가자와 단체가 '젊음의 행진'을 주제로 행진을 하고, 광주시 동구 13개 행정동이 준비한 동 상징물을 운반하는 행진도 이어진다. 하이라이트 행사로 금남로 한가운데서 축제 상징 조형물을 불태우는 행사도 치러질 예정이다.

축제 기간 중에는 차량 운행이 통제된 금남로 일대에서 아스팔트 도로를 도화지 삼아 분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길위의 스케치북' 체험도 상시 진행한다.

금남로 곳곳에서는 만남의 거리(금남로 3가), 열광의 거리(2가), 정열의 거리(2가), 낭만의 거리(1가) 등 테마별로 다른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금남로 1가 '낭만의 거리'에서는 '추억의 놀이

터'가 열려 대형 젠가, 추억의 DDR, 물풍선 던지기 등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금남로 2가에서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청각·촉각·시각·후각·미각 등 5개 카테고리별 '체험형 전시관'을 운영한다.

'촉각존(ZONE)'에서는 추억의 감성을 불러일으킬 타자기, 주판, 오락실 게임기 등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으며, '후각존'에서는 어릴 적 보았던 엄마의 화장품, 비누, 옛날 음식 등 추억의 향기를 시향할 수 있다.

'청각존'은 LP 레코드, 카세트테이프, CD, MP3 등 옛 유행 장치를 이용해 옛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꾸며지며, '시각존'에는 옛 휴대폰, 타자기, 아날로그 TV 등 미디어아트 콘셉트 전시관이 설치된다. 마지막으로 '미각존'에서는 시대별 라면, 분식, 빵기 등 판매부스를 만나볼 수 있다.

10월 2~4일 금남로 3가에는 동구내 푸드트럭 협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음식 부스가 마련되

며, '추억의 맛'을 대표하는 분식(떡볶이·오뎅·상추튀김 등)과 돈가스·주먹밥, 후식(오랑썩어·아이스크림 등) 등을 판매한다.

3~4일 금남로 3가에서는 바둑·오목·알까기 대회와 추억의 보드게임을 즐기는 테마의 거리도 조성된다.

바둑대회는 청년·일반부로 나눠 전국대회로 치러지며,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초청해 이벤트 경기와 인터뷰를 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젠가, 해적왕 롤렛, 텀블링 몽키, 팽귄 열음개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기 보드게임을 테이블 존에서 즐길 수 있다.

김태욱 감독은 "각각의 기억으로 각인된 추억을 오감으로 되살려내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어제의 추억이 오늘의 나를 이끌어간 것처럼, 오늘의 추억이 영원히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믿음 아래 오감으로 즐기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손도장으로 완성한 제헌절 태극기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광주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손도장을 직접 찍어 완성한 태극문양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국가보훈부, 5·18 3단체 비리 감사 결과 확정

### 3단체 이의 제기 기각

국가보훈부가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회원 일부가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제기한 이의 신청은 사실상 기각됐다.

국가보훈부는 16일 홈페이지에 '2023년 후반 기보훈단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의신청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확정된 것이다.

지난 5월 국가보훈부는 공법3단체에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감사 결과 적발된 비리 내용을 통보(5월 7일자 광주일보 6면)하고 이의 신청을 받았으나,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초 감사 결과와 달라지지 않았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공동 사항으로는 허위 근로자 등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상임부

회장 수당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국고보조금 지부운영비 부정 집행, 회계처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5·18부상자회에서는 법인차량을 고가매입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과 수익사업 승계 시 배임·횡령, 임원의 직무해태, 명절 기념품 구매 관련 리베이트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났다. 5·18공로자회는 업무용 차량 구입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국고보조금 행사비 목적 외 사용, 외부인의 업무 부당개입 등 문제를 적발당했다.

국가보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5·18부상자회·공로자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비위 관련자를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명시했다.

5·18유족회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전산보고 지연, 자체 규정 미비, 중요재산 관리 미흡 등 문제를 지적받아 주의·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보훈부는 조만간 비위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 '승진 뇌물 의혹' 현직 치안감 4년 구형

검찰이 사건 브로커를 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현직 치안감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고수준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6일 광주지법 102호에서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소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0만원·1000만원 추징을 부과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진을 부탁한 B(55·제3자뇌물교부) 경감에게는 징역 1년 6월, 브로커 성모(63·제3자뇌물취득)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장 재임시기인 2022년 2월 사건 브로커 성모씨로부터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소속 B 경감의 승진 인사 청탁 명목이었다. B씨와 성씨도 제3자 뇌물교부·취득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해 오던 A치안감과 B경감에 대해 "성씨가 경합하지 않고는 알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 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지만, A치안감과 B경감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치안감의 변호인은 "당시 B경감 승진 결

정은 문제가 없었고, 증거인멸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브로커 성씨의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억지로 꺾었음 상황이고, 공정과 객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표적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 대한) 모독이다. 증거를 토대로 기소한 사건을 표적 수사로 편향하지 말라"고 강하게 맞섰다.

A치안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청탁과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다시한번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씨는 "범행 자백 후 진분이 있는 A 치안감 등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고 맞섰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8월 2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입맛 없는 여름철 퓨전 음식 배워봐요

### 광주 북구, 브런치 요리 강좌

광주시 북구가 여름철을 맞아 퓨전 음식 조리법을 익히는 '브런치 요리 강좌'를 연다.

북구는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 북구 삼각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 2층 향토음식체험실에서 '여름 단기 특별 브런치 요리 강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좌는 운영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5회로 구성됐으며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남도예음식장)' 이수자인 임영란씨가 강사로 나선다.

회차별로 떡볶이조림, 명란스파게티, 제철 과일 수제빙, 양송이버섯페스토, 바질페스토, 죽순채, 울란, 단호박스프, 뽕소 등 총 16종의 퓨전 음식을 배울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지역주민 성인 32명이며 요리 이론, 실습, 시식 등 전 과정은 무료다. 다만 재료비는 수강생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9일부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웹사이트를 통해 선착순 수강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체육관광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